

2/1/15

설교 제목: 전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 전서 3:1-9

- (고전 3: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고전 3: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 (고전 3: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 (고전 3: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 (고전 3: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 (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 (고전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절관주** 욥 4:19
- (고전 3: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크리스찬된 우리 중에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 잡지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설교가 회개에 관한 설교고 그 다음이 전도에 관한 설교, 그 다음이 헌금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크리스찬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이자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가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혹시 우리가 전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신 전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신 전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전도인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속삭여서 이쪽 교회로 옮겨다 놓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음에도, 사람 많이 데리고 왔다고 전도왕으로 세워 주고 전도상으로 금 반지, 금 돼지 등을 주기도 합니다.

전도 집회라고 인기 가수나 개그맨 또는 탈렌트들을 불러다 사람들 가득 모아 놓고 한판 신나게 잔치를 벌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시내 곳곳에 버스를 보내어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교인이 줄어 자립은 커녕 목사님 생계도 위협을 받는 형편이지만 큰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전도라고 열심이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내 교회에 사람 가득 모아 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했구나! 칭찬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억지로 2100 억내지 3000 억을 들여 landmark 건물을 세운 교회 목사, 교회가 큰 주식 회사이고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EO 이자 대 주주인양 교회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흥청망청 쓰다가 아들들과 함께 법정에서 목사, 성도들을 수없이 성추행을 해 놓고도 아직도 위풍당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실력도

없으면서 영터리로 라도 박사 받겠다고 논문 표절하여 박사 학위받아 박사 꼬리표 달고 다니는 목사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리 백화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이세상이 너무 좋고 신바람이 나는데 저 세상을 왜 생각합니까?

이세상에서 한자리 차지해 좋은 차 타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이너니컬하게도 이런 곳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돈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큰 소리치며 쓰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 집단에 들어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열등한 자로 보이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덩달아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와 하십니까?

우리 모두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의식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구요.

누가 하란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기 보다는 이것이 옳은 건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전도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진정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전도를 하라고 명령 하셨는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도 와 닿아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글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를?

복음!, Good News!

죄로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 당장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던지, 아니면 당장 지금부터 믿겠다고 하는 결신을 받아내야만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개는 무리수를 두게 되고 부작용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도를 전해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결신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다음에 다른 분이 전했을 때 결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결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안에서 서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사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사도 바울파다, 소용 없는 짓거리이다.

인간인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대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지 왜 복음의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사람에게 시키셨을까요?

(고전 3: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맡기심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자함입니다. 그 일을 맡은 우리를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을 선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시겠습니다.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하면 그것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 때 다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살 한 영혼의 가치와는 감히 비교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택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직 여러분 혼자뿐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마 18: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 18: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 18: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똑똑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이런 사랑, 영혼 구원 사명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목숨 걸고 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2.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별이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토기장이가 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왕궁에 왕의 술 잔으로 보내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성전에 보내 졌습니다.

이때 성전에 보내진 잔은 성별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TV 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TV 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고 있는 이 TV 는 거룩하게 성별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성별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십니다.

(신 14: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쓰려고 성별하셨을까요?

전도에 쓰려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해 성별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로 시작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을 꺼냈다가 공연히 무안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에게 내어 맡긴 그 사람을 반드시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말해 우리가 전도를 성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시키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하실 때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별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에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전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이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갰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철학자의 이야기나 유명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유식하다 생각하고 또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할 뿐더러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합시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상대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줍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